

역대급 가마솥 더위... 온열질환자 속출

광주·전남 6일째 폭염특보 25일까지 최고기온 33도 어지럼증·탈진 20여명 이송

옛새끼 폭염특보가 내려진 15일 광주의 낮 기온이 올들어 가장 높은 36.1도까지 오르는 등 광주·전남이 뭉뚱 뚱 뚱 있다. 7월 중순만 살펴봤을 때 지난 1994년 이후 24년 만에 최고 기온이다. 광주·전남 지역에서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등 폭염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15일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에 따르면 광주·전남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표된 7월 10일부터 7월 15일까지 최근 5년간(2014~2018년) 낮 최고기온을 살펴보면 올해가 평균 33.7도 가장 높았으며 2017

년 31.7도, 2014년 30.2도, 2016년 30.1도, 2015년 29.7도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의 경우 평년(1891~2010년) 28.6도보다 무려 5.1도 높았다. 최악의 무더위가 찾아온 지난 1994년(35.5도)과는 불과 1.8도 차이였다.

특히 15일 낮 최고기온은 순천 황전면 36.6도를 최고로 곡성 옥과·보성 북내 36.3도, 구례 36.2도, 광주 36.1도, 함평 35.8도, 담양 35.3도, 화순 35.1도, 광양 35도 등을 기록했다. 이는 평년보다 최고 7도 가까이 높은 수치다.

광주·전남의 폭염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15일 낮 12시 28분께 광주시 남구 신장동 논에서 2시간 가까이 농약 작업을 하던 이모(65)씨가 어지럼증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밖에도 지난 14일부터 광주 14명 전남 7명 등이 어지럼증,

탈진 등으로 병원에 옮겨졌다.

이번 무더위는 한반도의 기상 특성과 맥을 같이 한다. 장마가 물러남에 따라 매년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반도 전역으로 확장하면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무더위라는 예기다.

이번 폭염도 한반도에 있던 장마전선이 현재 중국 만주지역으로 북상하며 상대적으로 세력이 커진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반도에 장기간 자리잡으면서 시작했다. 기상청은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되고 햇빛이 강하게 지면에 내리쬐며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기상청은 15일 기준 목포를 제외한 광주·전남 지역 22곳 폭염특보를 발효했으며, 광주와 나주, 함평 등 12곳에 폭염경보를 발효했다.

이현규 광주지방기상청 예보관은 “오는

25일까지 낮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을 기록하고 광주·전남 일부 지역에서는 아침 기온이 25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대기불안정에 의한 소나기 소식도 당분간 없어 무더위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고 말했다.

한편, 기상청은 광주·전남(남부지방)의 장마가 통상 6월 23일에 시작해 7월 23~24일에 끝나는 것으로 미뤄 아직 장마 종료를 선언하기에는 이르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갑작스런 변화로 장마전선이 다시 한반도로 내려올 수 있어 장마 종료를 시점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15일 발표한 기상청 중기예보(10일 예보)를 보면 오는 25일까지 비 예보가 없어 사실상 장마는 끝난 셈이다.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무더위에 북적이는 빙수 가게. 광주·전남 지역에 6일째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15일 밤 시민들이 광주시 남구 봉선동의 한 빙수전문점에서 빙수를 즐기면서 더위를 식히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30 해질 19:47 달뜨기 08:49 달짐 22:21

온열질환 조심하세요
불볕 더위가 계속 이어지겠다.

광주	맑음	24/36	보성	맑음	22/34
목포	맑음	24/32	순천	맑음	25/34
여수	맑음	25/33	영광	맑음	23/34
나주	맑음	23/35	진도	맑음	23/33
완도	맑음	24/33	전주	맑음	24/35
구례	맑음	24/36	군산	맑음	23/33
강진	맑음	23/34	남원	맑음	23/35
해남	맑음	23/33	흑산도	맑음	23/29
장성	맑음	23/34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부	앞바다 남동~남	0.5	북서~북	0.5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서	0.5	남서~서	0.5	
	면바다(동)	남서~서	0.5~1.0	남서~서	0.5~1.0
	면바다(서)	남서~서	0.5~1.0	남서~서	0.5~1.0

◇ 생활지수

- 주요: 식중독
- 매우높음: 지외선
- 중음: 미세먼지

◇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9:45 21:52	04:40 16:45
여수	간조	만조
	05:14 17:24	11:25 23:58

◇ 주간 날씨

17(화)	18(수)	19(목)	20(금)	21(토)	22(일)	23(월)
☀	☀	☀	☀	☀	☀	☀
24/36	24/35	24/36	25/36	25/36	25/36	25/35

광주지검 차장검사 정수봉·인권감독관 나병훈

검찰 617명 인사

법무부는 “광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에 정수봉(52·사법연수원 25기)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를 발령하는 등 검사 617명에 대한 인사를 오는 19일자로 단행했다”고 15일 밝혔다. <명단 22면>

정 차장 검사는 경북 영양군 출신으로 서울대 공법학과,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했으며, 춘천지검 영월지청장·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장·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대검 범죄정보기획관 등을 역임했다.

광주지검 인권감독관에는 나병훈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장, 형사1부 부장에는 박철용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 형사2

부장에는 손준성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 형사3부장에는 신승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이 보임됐다. 여성사동범죄조사부장에는 전현민 법무연수원 교수, 공안부장에는 이희동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강력부장에는 김호삼 목포지청 형사2부장, 공판부장에는 김지연 광주지검 부부장이 발령됐다.

5·18 헬기 기총 소사를 규명하고 전두환 전 대통령을 사자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지휘, 기소한 윤영준(56·24기)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서 대검에 인권부를 신설하고 인권수사자문관 5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조선대, 논문표절 이유 소송중인 교수 또 임용취소 결정

조선대학교 법인 이사회가 논문표절을 이유로 한 교수에 대해 두차례나 임용취소 결정을 내렸다.

13일 조선대에 따르면 법인 이사회는 전남 회의를 열고 모 학과 A교수 임용취소안을 상정해 가결했다.

A교수는 지난 2월에도 같은 이유로

이사회에서 임용이 취소된 바 있다. 이후 A교수가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A교수는 교수 지위를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조선대 측은 이에 대해 이의신청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도교육청 간부 96명 전직신청서

교육감 요구 대상자 전원 9월 인사 대대적 물갈이

전남도교육청은 15일 소속 장학관, 연구관 등 간부 교육공무원 96명이 전직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신임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이 지난 9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지시한데 따른 조치<광주일보 2018년 7월 10일자 7면>다. 제출자들은 전남 22개 시·군 교육장, 분청 과장급 이상 보직 간부, 교육연구정보원장 등 직속기관장, 연구부장 등 연구관이다. 이들은 전직신청서에 기존 보직이 아닌 교장, 교감, 원로교사로 오는 9월 1일자 인사에

따라 이동하는 것을 희망한다는 취지로 적었다고 교육청은 전했다. 관례라면 이들 보직은 통상 2년 임기가 보장돼 왔으나 장 교육감은 교육청 및 교단 쇄신을 위한 조치로, 전원 전직신청서 제출을 지시했다. 보직을 맡고 있는 간부공무원 전원이 장 교육감 지시에 따라 사실상 보직사퇴서를 제출하면서 올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가 현실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교육청 측은 제출 받은 전직신청서를 이르면 이번 주 중 꾸러질 도교육청 인사 테스크포스(TF)에 넘겨 올 하반기 인사 참고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교장 갑질 더는 못 참겠다”

전남 모 초등학교 교사들 전남도교육청 진상조사 촉구

전남의 한 초등학교 교사들이 교장으로 부터 인권과 교권을 침해당했다며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에 진상조사 및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15일 전남도교육감직 인수위에 따르면 전남 모 초등학교 전체 교사 6명이 최근 인 수위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교장의 인권침해 행위 등을 폭로했다. 교사들은 자신의 이름과 서명을 적은 연판장에서 지난 1년여 동안 교장의 행태를 적고 조치를 촉구했다. 교사들은 A 교장이 결재 과정에서 교사들에게 고향을 지르고 욕설 등을 했으며 일방적으로 학년 배정 및 업무 분장을 했다고

주장했다. 길게는 1시간 30분까지 교사를 세워두기도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 교직원들을 상대로 허리 숙여 인사를 하도록 하는 소위 ‘인사연습’을 시켰으며,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이유로 수차례 반복 하도록 했다는 주장도 있다. 교장과 교감의 주차 공간을 별도로 지정하거나 직급순대로 주차하도록 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A 교장은 “주차 문제 등 일부는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바꿨다. 잘 해보려고 했는데 선생님들을 상처받게 만들어 미안할 따름”이라며 자신의 행동에 일부부분 잘못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교육청은 전했다. 인수위는 교사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일부 부적절 행위가 확인됐으며 도 교육청에 진상조사 및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형호 기자 khh@

이용재 의원(광양)의 제11대 전남도의회 의장 취임을 축하합니다

제11대 전남도의회 의장에 선출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소통과 상생을 바탕으로 열린 의회, 강한 의회,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회를 기원합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1로 47번길 10(봉선동)
☎(062)673-2922~3 Fax(062)676-4870

전라남도세무사업조합
 전국세무공제조합 전남지부